

노인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김 정 옥 (대구기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이 원 진* (대구기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박사과정)

본 연구는 노인들이 삶에 흥미를 잃어 모든 일을 귀찮아하고 혼자 지내려는 우울증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치료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되는 때에 노인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 및 건강증진 행위요소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80세 이상의 노인여성 38명을 대상으로 화장하기 전과 후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 했다. 각 하위 요인별로 Cronbach α 신뢰도=.6000 이상으로 모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사용하고 화장의 효용성 차이 유무를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의 전반적인 효용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을 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마음이 안정스럽다는 것에 높은 수치가 나와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화장의 심리적 안정감 및 사회적 관계의 적극성이 매우 증대됐다. 화장 후에는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밝아지며 의욕과 상쾌한 기분이 들며 기쁘다고 했다. 또 화장 후에는 편안한 마음이 들고 화장 전에는 거의 이성의 대상에 대한 관심질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던 것을 화장 후에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했으며 사귀고 싶다는 표현을 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 측면의 만족감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적극성 측면의 만족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3. 화장 후의 긍정적 대인관계는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화장 후에는 누가 길을 물어 봤을 때 자신있고 우아하게 대답했고, 즐겁고 적극적인 인상을 사람들에게 줄려고 했으며 화장 후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이나 무뚝뚝한 인상이 감소되며, 자신을 가지게 되고 남의 시선을 피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4. 화장 후의 자기가치감은 외모의 변화를 통해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장 후 허전한 기분에서 한결 벗어나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느낀다고 했으며, 우울했던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화장 후에는 목소리의 톤까지 올라가는 기분을 느낀다고 했으며 안정감이 없는 문제나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조절한다고 했다. 따라서 화장은 화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측면에서의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기에, 노인성 치매나 우울증 환자에 대한 화장방법을 지도함으로써 화장요법(Cosmetic Therapy)으로서의 임상 심리적인 면에서 좀 더 깊이 연구되었으면 한다.